

# “모르겠다…죄송하다” 고개숙인 이재용…대가성은 강력 부인

## 재벌총수 9명 국정조사 청문회

재벌그룹 회장 9명이 동시에 출석해 이뤄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됐다.

질문의 절대 다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집중됐지만, 여타 그룹 총수들도 논란이 된 현안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삼성은 10억원 상당의 말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상납한 게 드러났다”면서 “이후 2014년 11월 삼성이 한화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매각하는 2조원 규모의 빅딜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삼성은 최씨 일가에 개별적으로 100억원을 지원하고, 유입에서 말을 구입해 정씨가 타고다니도록 했다”면서 “정씨가 국제스포츠 마장마술에서 등수가 560등인데 이런 선수를 2018년 올림픽에 메달을 따게 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느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세계적인 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일개 본부장인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다가 “그때 홍 전 본부장이 이 부회장에 1:0.35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조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에게 “삼성으로부터 합병

정몽구 “광고 몰아주기 기억 안나”

손정식 靑 이미경 퇴직 압박 시인

조양호 “임명권자 뜻 알고 몰라나”

에 찬성해 달라는 압력 전화를 받았느냐”면서 “찬성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에 대한 주식투자 운용자금에 페이비(favor·혜택)를 주겠다고 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문화 육성, 스포츠 발전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지원해주는 게 경제 발전, 관광산업 발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지원을 아끼었어야 해달라는 말씀은 들었다”면서 “그러나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라던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보아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순실씨가 실질 소유하고 있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0억여 원어치의 광고를 맡긴 것과 관련, “광고에 대해서 내가 직접 관련도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대차는 정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후 안중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설명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감을 몰아쳤다.

최순실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여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는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다 눈을 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는 박 대통령과 정 회장 독대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이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청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정 회장과 임석한 최찬목 변호사는 “면담 말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8억3000만원짜리 네덜란드산 말 두 필을 구입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상납했다”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의혹 제기

“정유라가 금메달을 딴 것은 알지만, 그 말을 탄 것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정식 CJ그룹 회장은 박 대통령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손 회장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전화통화 전 만났고, 조 전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한다고 (박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의아해 반문했으나 이유에 대해서

는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특정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군부 시절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 사퇴에 대해 “임명권자 뜻으로 생각하고 몰라났다”며 “(최순실의 압력은) 들은 적이 없고 업무에 여러 가지로 지쳐서 사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삼성·SK·LG “전경련 탈퇴 하겠다”

### 해체 압박 커져…총수 5명은 “친목단체로 남아야” 반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계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해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경련 최대 회원사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재벌 기업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처지다.

이 부회장은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거듭 전경련 해체를 종용하자 “제 입장에서 해체를 꺼릴 자격이 없다.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오전에도 하 의원이 “삼성이 전경련 해체에 앞장서겠느냐. 앞으로 전경련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재촉하자 “그러겠다”고 답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하 의원이 연이어 전경련 탈퇴 의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삼성은 전경련 회원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연간 회비도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탈퇴하면 전경련 위상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 연간 운영 예산은 400억원 정도이며 삼성을 포함한 5대 그룹이 내는 회비가 약 200억원이다.

전경련은 그동안 산업화 초기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경쟁 유착’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업들로부터도 개편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묻자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총수들에게 “전경련 해체를 반대하면 손을 들어달라”고도 요구했지만, 그룹 총수들은 전경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듯 한동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안 의원이 재차 묻자 결국 총수 9명 가운데 신동빈, 구본무, 김승연, 정몽구, 조양호 회장 등 5명이 손을 들었다. 구본무 회장은 “전경련은 헤리티지 단체처럼 운영하고 친목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은 전경련 해체 요구와 관련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인복)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체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과 회원사 생각을 반영해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野 “김기춘 출석 안하면 별도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별도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특유의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실장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별도 청문회’ 카드를 거론하면서 막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 전 실장에 대한 별도 청문회 문제를 상의했다”면서 “내일의 출석 여부와 발언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어놓고 의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내일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다.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별도 청문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기춘 청문회’를 별도로 하루 일정으로 잡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7일 청문회의 주요 증인인 최순실씨를 함께 언급, “붕어빵은 붕어 없어도 붕어빵이지만 최순실 등 중요 증인이 불출석하는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다”라면서 “중요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키도록 청와대는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박영수 특검팀 검찰 수사기록 검토 착수

### 파견검사 10명 검찰에 요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6일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이로써 특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파견검사사와 특검보들이 기록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1:1 넘는 기록 전체를 다 받았다”면서 “특검보와 파견검사사들이 어디서 모여 작업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미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사 10명을 지원받은 박

특검은 이날 나머지 10명의 파견검사사를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또 40명의 특별수사관 충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사회에 적격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특검팀이 동지를 틀 사무실도 전날 밤 공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대치동의 D빌딩 3개층을 임대해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

박 특검은 “사무실이 보안시설인 만큼 많은 작업이 필요하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달 13일쯤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날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박 특검은 유심히 살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학부모 여러분!**  
**개선된 국가장학금이**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전 소득분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등으로 공정한 소득분위가 산정됩니다.

**신청기간**  
2016. 11. 17(목) 9시 ~ 12. 13(화) 18시  
\*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16. 11. 17(목) 9시 ~ 12. 16(금) 18시  
\* 소득분위(구간)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단,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대상**  
국내대학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현 고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도 함께 신청가능!

원할한 신청을 위하여 권역별 집중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가급적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학생들은 11. 17(목) ~ 12. 8(목) / 수도권 외 지역 학생들은 11. 22(화) ~ 12. 13(화)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